

# BELLATRIX 옛날의 빛

업데이트 기록			
버전	날짜	내용	작성자
v.1.0.0	2024.03.29	목차 설정 및 시나리오 작성	고은
v 1.0.1	2024.03.31	시나리오 수정	고은
v 1.0.2	2024.04.01	갈등구조 수정	고은

## INDEX

1. 갈등구조 .....	4
2. 시나리오 .....	5
S#1 세레나 초원의 람프로스 갈대밭 .....	5
S#2 세레나 초원의 이스히로스 나무 .....	7
S#3 세레나 초원의 람프로스 갈대밭 .....	9
S#4 세레나 초원의 이스히로스 나무 .....	11
S#5 세레나 초원의 아네모스 언덕 .....	12
S#6 루미나 숲의 스테노스 길 .....	14
S#7 루미나 숲의 플루오라의 정원 .....	15

## 1. 갈등구조



## 2. 시나리오



### S#1 세레나 초원의 램프로스 갈대밭

은하수가 보이는 밤하늘, 빛나는 푸른 갈대로 이루어져 있는 신비로운 램프로스 갈대밭이 있다. 그 갈대밭에서 뛰어다니는 수십 마리의 **1람페리오스**들.

**2스코네스**, **3카르포이**, **4스타고네스** 종족 모두가 모여 평화로운 갈대밭에서 같이 어울리고 있다. 갈대가 바람에 살랑이며 은은한 빛을 내고 있다.

마침, 그 주변을 산책하고 있던 수호자 **5아리엘**. 사이좋게 놀고 있는 램페리오스들을 발견한다. 아리엘은 잠시 걷는 것을 멈추고 램페리오스들을 바라보며, 슬며시 미소를 짓는다.

갈대밭을 뛰어다니다가 미소 짓고 있는 수호자 아리엘을 발견한 램페리오스들. 램페리오스들은 아리엘에게 다가가 대화한다.

*램페리오스들: (좋아서 방방 뛰며, 다함께) "아리엘!"*

---

<sup>1</sup> 램페리오스: 아리엘이 벨라트릭스에서 창조한 생명체이다. 총 세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sup>2</sup> 스코네스: '램페리오스' 종족 중 하나. 백색빛으로 빛나며 먼지덩어리 얼굴을 가진 작은 생명체들이다.

<sup>3</sup> 카르포이: '램페리오스' 종족 중 하나. 노란빛으로 빛나며 둥그란 열매 얼굴을 가진 작은 생명체들이다.

<sup>4</sup> 스타고네스: '램페리오스' 종족 중 하나. 파란빛으로 빛나며 물방울 모양의 얼굴을 가진 작은 생명체이다.

<sup>5</sup> 아리엘: 별 '벨라트릭스'의 수호자. 성인 여자모습을 한 로마신화에 나올 것 같은 형체를 가졌다.

아리엘의 발밑까지 다가온 람페리오스들. 아리엘은 왼쪽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왼쪽 손을 아래로 내민다.

람페리오스는 아리엘의 손 위로 올라가며 아리엘의 머리에 한 마리, 양쪽 어깨 위에 3마리가 올라가 앉는다. 아리엘은 손을 거두고 일어나 다시 이스히로스 나무쪽으로 걸어간다.

이때 아리엘의 몸에 앉지 못한 람페리오스는 그녀의 발 뒤에서 따라간다.

## S#2 세레나 초원의 이스히로스 나무

<sup>6</sup>이스히로스 나무에 도착한 아리엘과 람페리오스들. 아리엘은 이스히로스 나무를 등지고 나무 그늘에 앉는다. 그녀가 앉자 아리엘을 쫓아오던 람페리오스들은 그녀의 무릎 위에 올라온다. 올라오지 못한 람페리오스는 그녀의 주변에 앉아있다.

아리엘은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온 람페리오스의 포근함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는다.

잠시 뒤,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본 아리엘은 고개를 들어 별을 관찰한다.

아리엘은 유독 크게 보이는 붉은색 별 <sup>7</sup>베텔게우스를 바라보는데, 그 별의 붉은빛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아리엘은 점점 커지는 붉은빛을 유심히 바라본다.

그 순간, 그 별이 죽음을 맞아 폭발하여 점점 큰 붉은빛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리엘은 나무 그늘에서 성급히 일어나 혼잣말을 한다.

*아리엘: (정이 어두워지며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어떻게... 베텔게우스가..”*

*람페리우스들: (아리엘 몸 위에 앉아있던 람페리우스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무슨 일이지...?’*

아리엘은 황급히 람페리우스들을 바라본다. 아리엘은 왼쪽 무릎을 꿇고 양팔을 벌려 람페리우스들을 감싸 안으며 얘기한다.

*아리엘: (목소리 톤을 낮추며 심각한 표정으로 람페리우스들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이) “어서 숲으로 들어가. 모두!”*

아리엘의 말을 들은 람페리우스들은 뒤를 돌아 숲을 향해 뛰어간다. 아리엘은 람페리우스들이 숲으로 모두 피신한 것을 확인한 후, 점점 커지고 있는 붉은빛을 향해 몸을 틀어 하늘을 바라본다. 붉은빛은 점점 크기가 커졌으며 벨라트릭스의 살랑이던 바람의 세기가 거칠어지고 충격파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아리엘은 온몸으로 느낀다. 아리엘은 서둘러 그 자리에서 그녀의 힘을 발휘해 별 전체에 결계를 설치한다.

*아리엘: (양손을 하늘 높이 올려 자신의 힘을 방출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제발...’*

---

<sup>6</sup> 이스히로스 나무: 세레나 초원 중앙에 있는 큰 세계수이다. 세레나 초원에서 유일한 나무이다.

<sup>7</sup> 베텔게우스: 별 ‘벨라트릭스’ 근처에 있는 별이다. 암흑의 무리 ‘스코타디’의 공격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는 별이다.

아리엘은 자신의 힘을 소모시키며 결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리엘의 생각보다 붉은빛은 더욱 빠르게 다가오고 더욱 커진다. 자신의 힘으로는 치명적인 피해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챈 아리엘은 표정이 어두워진다. 아리엘은 자신이 희생하기로 결정한다.

*아리엘: (결심한 표정으로 자신의 심장 부분에서 영혼을 꺼내 양손을 하늘 높이 올리며) '나의 람페리오스들과 벨라트릭스를 위해서라면...'*

베텔게우스의 강렬한 폭발 충격파가 벨라트릭스에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아리엘은 자신의 영혼을 꺼내 또 하나의 강력한 보호막을 만든다. 얼마 후, 폭발 충격파는 경력한 보호막에 충돌하여 분산되고 경력한 보호막도 충격파에 의해 깨지게 된다. 아리엘의 영혼은 다섯 조각으로 나뉘어 '베텔게우스의 파편'과 '플로프시히'와 함께 벨라트릭스의 곳곳에 묻힌다.

---

<sup>8</sup> 플로프시히: '베텔게우스'의 생명체 '플로게스'의 영혼이다. 별을 잃은 사념에 빠진 영혼이다.



### S#3 세레나 초원의 램프로스 갈대밭

은하수가 보이는 밤하늘 아래 빛나는 푸른 갈대로 이루어져 있었던 램프로스 갈대밭, 전과 달리 몇몇 푸른 갈대들이 빛나지 않아 어두워진 상태이다. 조용한 갈대밭에서 스코네스 한마리가 돌아다닌다. 그 스코네스의 이름은 '아엔'. 스코네스 아엔이 갈대에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돌아다니는 아엔가 갈대밭 중앙에 반쯤 묻혀있는 하얀 조각 하나를 발견한다. 아엔은 파묻혀있는 조각을 꺼내 바닥에 올려놓는다. 아엔, 아리엘의 영혼 조각에 소원을 빈다.

**아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지켜줘서 고마워요. 아리엘.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다시 예전의 벨타트릭스를 보고 싶어요.'

영혼조각이 점점 하얗게 빛나며, 공중에 떠오른다. 영혼 조각에서 아리엘의 목소리가 들린다.

**영혼 조각:** (아리엘의 목소리로) "아엔, 네가 나를 깨워주었구나. 고마워."

영혼조각이 밝게 빛나며 아엔의 옆에 작은 빛의 소용돌이가 생긴다. 빛의 소용돌이에서 8-10세 소년 크기만 한 작은 수호자가 나타나고 빛의 소용돌이는 없어진다. 영혼 조각은, 다시 말을 이어간다.

**영혼 조각:** (아리엘의 목소리로) "우리 별을 지켜줄 수호자 '포타'야. 나의 기억과 능력을 계승하고 있는 특별한 아이지. 하지만 조각난 내 힘으로는 모든 능력을 부여해 주긴 어려워. 각 지역의 램페리오스와 함께 나머지 영혼 조각을 찾아 수호자의 능력을 찾아내보렴. 다시 아름다운 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벨라트릭스를 부탁해."

영혼 조각은 점점 희미해지며 공중에서 소멸된다. 사라진 영혼 조각을 바라보고 있던 아엔와 포타는 서로를 바라본다. 포타는 아엔에게 말을 건다.

**포타:** "우리는 이제 영혼 조각을 찾으러 떠나야 해. 혹시 근처 램페리오스가 있는 곳을 알려줄 수 있니?"

**아엔:** (포타를 바라보고 폴짝폴짝 뛰며) "응, 세레나 초원에는 램페리오스 중 스코네스들이 사는 곳이야! 내가 같이 가줄게."

포타와 아엔, 나란히 갈대밭 속으로 걸어들어간다.

아엔와 포타는 갈대밭을 건다가 빛을 내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 길을 막고 있는 갈대를 발견한다.

*아엔: (포타를 바라보며) "어떻게.. 시들어버렸어.. 앗..! 포타, 혹시 능력을 한 번 써볼까? 아리엘의 능력이 포타에게도 있다면 포타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포타: (긴장한 표정으로)"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한 번 해볼게!"*

포타는 빛나는 오른팔을 내밀어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아리엘이 계승해 준 능력을 사용한다. 포타의 힘을 받은 갈대는 다시 회복해 빛나는 푸른 갈대로 돌아온다.

포타와 아엔은 시들어버린 갈대로 막혀있는 길을 포타의 힘을 사용해 갈대를 회복시켜 길을 원상복구 시킨다.

얼키고 설킨 갈대로 진입할 수 없는 길에서 갈대를 순서대로 회복시키는 퍼즐을 해결해 길을 확보한 후, 이스히로스 나무를 향해 걸어간다.

## S#4 세레나 초원의 이스히로스 나무

갈대밭에서 나와 이스히로스 나무 앞에 도착한 포타와 아엔, 이스히로스 나무 그늘에는 여러 마리의 스코네스들이 앉아서 쉬고 있다. 아엔은 다른 스코네스들에게 포타를 소개한다.

**아엔:** (큰 소리로) "이 별의 새로운 수호자, 포타야!"

**스코네스들:** (웅성거리며) "환영해, 포타!"

**포타:** "안녕, 스코네스.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혹시 영혼조각을 본 적 있니?"

**스코네스들:** (정막이 흐르다가 한 스코네스 '리오'가 말한다) ".....나, 나무 위에서 <sup>9</sup>아네모스 언덕에 밝은 빛이 반짝이는 것을 봤어..!"

포타와 아엔이 말한 스코네스 '리오'에게 다가간다. 주변에 있는 스코네스들은 리오를 중심에 두고 뒤로 한발짝 물러간다. 포타와 아엔이 리오 앞에 선다.

**포타:** (리오를 바라보며) "정확히 어디에 떨어졌는지 기억나? 리오?"

**리오:** "이스히로스 나무 위에서 봤어! 그런데 지금 나무가 파편으로 다쳐서 올라가지 못해..."

**아엔:** (리오를 바라보며) "괜찮아 리오. 방법이 있어. (포타를 바라보며) 포타, 포타의 능력을 사용해서 리오와 함께 나무 위로 올라가자"

포타, 아엔, 리오는 부서진 나무로 막혀있는 길을 포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길을 만들어 지나간다. 높이가 높아 포타가 올라가지 못하는 곳은 주변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옮겨 포타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퍼즐을 해결해서 나아간다.

나무의 윗부분을 갈수록 날카로운 폭발의 파편이 많아지며 포타와 아엔, 리오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고 이들은 파편을 피해 위로 올라간다. 나무의 꼭대기 가지에 올라간 포타와 스코네스들, 리오가 아네모스 언덕의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영혼 조각의 위치를 알려준다.

포타와 아엔과 리오, 나무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 리오는 이스히로스 나무에 다른 스코네스들과 남는다. 포타와 아엔은 아네모스 언덕으로 출발한다.

---

<sup>9</sup> 아네모스 언덕: 바람이 부는 세레나 초원의 언덕이다.

## S#5 세레나 초원의 아네모스 언덕

선선한 바람이 불고 폭신한 구름이 떠나니는 아네모스 언덕이다.

바람이 부는 아네모스 언덕 입구에, 아엔과 포타가 나란히 서있다. 포타와 아엔은 바로 앞에 있는 파편으로 만들어진 구덩이를 주변의 작은 바위들을 구덩이로 넣어 길을 만들어 지나간다.

포타와 아엔의 앞에 베텔게우스 파편이 보인다. 아엔은 신기한 듯 바라보고 손을 내민다.

**아엔:** (한쪽 손을 내밀며) '가까이서 처음 봐..' "앗!"

파편에 손을 댄 순간 아엔의 소리 지르고 손을 어루만진다.

**아엔:** "포타, 이 파편은 몸에 닿으면 안 될 것 같아.."

**포타:** "그래 조심해야겠어. 아엔도 조심하 날 따라와"

아엔과 포타는 베텔게우스의 파편을 피해 언덕을 계속 올라간다.

나무에서 보았던 영혼 조각이 묻혀있는 언덕 위까지 올라온 포타와 아엔, 검붉은색 연기 같은 형체를 하고 있는 플로프시히가 앞에 있는 것을 본다. 아엔은 겁을 먹고 포타의 뒤에 숨어있고 포타는 말을 걸어본다.

**포타:** (조심히 다가가며) "저기..넌 누구니. 람페리오스는 아닌 것 같은데"

**플로프시히:** (공격하려고 하며) "난..베텔게우스..생명..체..플로게스의 영혼... 넌 이 별의 수호자구나.. 날 구원해줘.."

**포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플로프시히:** (슬픈 목소리로) "너의 힘으로 날 소멸시켜줘.. 내가 돌아갈 곳은 이제 없어.." '안드레아스 곁으로 가고 싶어..'

**아엔:** "포타, 포타의 능력을 한 번 써봐..!"

포타는 플로프시히에 포타의 능력을 사용한다. 플로프시히는 연기처럼 소멸되며 포타에게 말을 전한다.

**플로프시히:** “고마워.. 다른 플로게스 영혼들도 네가 구원해 줘. 부탁할게..너를 아프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하지만 별을 잃은 고통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면 좋겠어.. 고마워 정말”

플로게스의 영혼은 그 자리에서 소멸되고 포타와 아옌은 앞으로 나아간다.

포타와 아옌이 언덕 위로 올라갈수록 영혼조각에 가까워진다. 언덕의 윗부분은 파편의 충돌로 길이 끊기거나 절벽이 만들어진 곳이 있으며, 포타와 아옌은 지나가는 구름을 밟고 지나가는 퍼즐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또한 플로게스의 영혼의 개체수가 늘어나 포타는 플로프시히들도 구원시키며 영혼조각이 묻힌 곳까지 올라간다.

도착한 포타와 아옌은 묻힌 영혼 조각을 꺼내 바닥에 올려놓는다. 포타와 아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포타, 아옌:** (눈을 감고) ‘아리엘 우리가 왔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영혼조각이 빛을 내며 공중으로 떠오른다. 그리고 환한 빛이 포타를 둘러싸고 잠시 후 사라진다.

공중에 떠있는 영혼 조각이 포타와 아옌에게 말을 건다.

**영혼조각:** (아리엘의 목소리로) 포타, 아옌.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포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줄게. 포타는 루미나 숲으로 가서 다른 영혼 조각도 찾아줘. 숲의 시작 스테노스 길에서 카르포이 히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옌은 지금까지 정말 용감했어. 이제 이스히로스 나무로 돌아가서 스코네스와 함께 보금자리를 정비해 줘. 부탁해.

영혼 조각은 말을 전하고 소멸된다. 포타와 아옌은 루미나 숲으로 걸어간다.

## S#6 루미나 숲의 스테노스 길

스테노스 길은 루미나 숲의 오솔길이다. 좁고 길 옆으로는 나무가 울창하게 위치하고 있고 빛이끼들이 빛나고 있어 아름다운 장소이다.

스테노스 길 앞에 도착한 포타와 아엔. 포타와 아엔은 이별한다.

*아엔: "포타, 이제 숲 앞이야. 이 앞으로 가면 카르포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이제 세레나 초원으로 돌아갈게. 난 포타를 믿어. 포타는 잘 해내갈 수 있을 거야. 다음에 또 보자 포타!"*

아엔은 뒤로 돌아 다시 초원으로 돌아간다. 포타는 앞에 있는 스테노스 길로 걸어간다.

스테노스 길은 울창한 나무와 빛이끼, 빛나는 보라빛의 플루오라 꽃이 곳곳에 피어있다. 혼자 스테노스 길로 들어선 포타. 사박사박 잔디를 밟는 소리가 난다. 멀리서 플루오라라는 꽃이 가득한 곳인 '플루오라의 정원'이 포타의 눈에 보인다. 포타는 우거진 숲의 나무를 오르고 이끼를 타고 올라가며 플루오라의 정원으로 걸어간다.

포타가 플루오라의 정원으로 다다를 무렵, 빛이끼 사이에서 포타를 바라보고 있는 '카르포이' 교베리를 발견한다. 교베리를 발견한 포타, 교베리에게 말을 건다.

*포타: (교베리를 보며)"안녕, 네가 카르포이구나. 나는 포타야. 혹시 영혼 조각을 본 적 있니?"*

*교베리: "응, 내가 봤어..! 피크노스 숲에 커다란 파편이랑 검은 연기들이 같이 떨어졌어..!"*

*포타: "그럼 바로 피크노스 숲으로 같이 가자! 길을 알려줘. 부탁해."*

*교베리: (어딘가 불편한 듯이)"..... 그런데 포타.. 사실 카르포이들이 지금 위험해.. 파편이랑 같이 떨어진 검붉은색 형체가 우리 카르포이들이 사는 플루오라의 정원에 내려와서 못 움직이고 있어.. 포타는 검붉은색 형체가 무엇인지 알아..?"*

*포타: "흠.. 아마 플로게스의 영혼일거야. 베텔게우스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이지. 그럼 먼저 카르포이들이 있는 플루오라의 정원으로 안내해 줘. 교베리."*

*교베리: "응, 알겠어. 고마워 포타"*

포타와 교베리는 함께 플루오라의 정원으로 걸어간다.

## S#7 루미나 숲의 플루오라의 정원

깊은 숲속나무들의 그늘로 조금 어둡지만 빛나는 플루오라로 아름답게 보랏빛으로 물든 장소이다. 플루오라의 정원의 중앙에 카르포이들이 모여있는 작은 바위 동굴이 보인다. 그 주변으로 플로프시히들이 서성이고 있다.

플루오라의 정원에 도착한 포타와 교베리, 카르포이를 구하러 간다. 포타는 플로게스의 영혼들의 공격을 바위에 오르거나 플루오라에 매달려 피하고 포타의 능력을 사용해 그들을 구원한다.

포타와 교베리는 플로게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플루오라의 정원 중앙에 도착한다.

포타와 교베리가 작은 바위 동굴 앞에 서있다. 교베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와 카르포이들을 부른다.

**교베리:** (큰소리로) “얘들아, 나 교베리야! 이제 안전해. 밖으로 나와도 괜찮아!”

**카르포이들:** (교베리에게 달려가며) “교베리!”

작은 바위 동굴에 숨어있던 카르포이들은 교베리에게 달려 나온다. 교베리와 카르포이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웅성거린다. 교베리보다 한 발짝 물려서 있는 포타는 앞으로 걸어 나와 카르포이들과 인사한다.

**포타:** (카르포이들을 바라보며) “안녕, 난 이 별의 작은 수호자 포타야. 너희들이 카르포이구나. 다친 곳은 없니?”

**카르포이:** 안녕, 포타. 우리는 멀쩡해. 고마워, 포타!

포타에게 감사 인사를 마친 카르포이들은 다시 플루오라가 가득한 꽃밭에서 뛰어다니며 뒹굴고 있다. 포타와 교베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영혼 조각이 있는 곳 피크노스 숲으로 갈 준비를 한다.